



일하는 청년

빛나는 미래

㈫ (주)유니컴퍼니

2019년 설립...열화상카메라 기술 특화
지난해 33억 매출...동종업계 선두주자

디지털·AI 분야 지역 인재들로 '팀웍'
광주시 지정 '프리·명품 강소기업' 선정

‘대한민국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는 ‘인공지능(AI) 실증도시’로 나아가는 광주시 발전 방향에 발맞춰 화상카메라와 드론, 로봇, 데이터 바우처 등 다양한 방향에서 지역 청년들이 기술력을 뽐내며 프리·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유니컴퍼니’가 있다.

유니컴퍼니는 특히 2019년 10월 청년기업으로 설립돼 불과 5년만인 지난해 매출액 33억원 규모로 성장한 광주에 근간을 둔 기업으로, 수준 높은 산업용·농업용 열화상카메라 기술로도 유명하다.

유니컴퍼니는 최신 카메라 기술을 앞세워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광주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유니컴퍼니는 광주시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프리·명품강소기업으로도 지정됐으며, 최근에는 드론을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에 납품하는 실적도 냈다. 유니컴퍼니는 이 밖에도 열화상 데이터, 작업 이미지, 피트니스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 데이터 바우처분야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쌓는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니컴퍼니의 성장 배경에는 우수한 지역 출신 인재 채용이 있다.

유니컴퍼니는 보성 출신의 청년 양승호(39) 대표이사를 필두로 디지털·AI 분야 지역인재들로 구성됐으며, 호남권 대표 AI 인재 양성 기관인 ‘스마트인재개발원’을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

설립 5년차 신생 기업이지만, 입사 1년차 연봉이 3000만 원대 중반대이고 3년 이상만 근무해도 4000만원 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견실한 기업으로 젊은 인재들의 입사 선호도 역시 높다.

광주일보의 광주시 북구 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 벤처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유니컴퍼니를 찾아 1~3년차 지역 청년들의 취업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니컴퍼니에서 만난 김도원(여·31), 구임규(31), 김별(여·35)씨는 모두 광주·전남 토박이로, 고향에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 모두 학창시절 당시 현재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과 출신이고 첫 직장 역시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했지만, 스마트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을 거쳐 관심 분야를 찾고 성공적으로 입사할 수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김도원씨는 광주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출신으로, 전공을 살리면서도 디지털·AI분야 등 지역의 유망한 기업에 입사

김별 씨

개발자 적성 안맞아 행정업무 지원
교육과정서 IT 이해도 높여 업무 도움
“취업 원한다면 ‘정보 탐색’ 가장 중요
사전 준비 필수...인턴 등 경험 쌓아야”

구임규 씨

데이터 송신·저장 체계 구축 업무
스마트인재개발원 통해 AI 기술 습득
“관심있는 분야라면 꾸준한 공부 필요
비전공자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도전”

김도원 씨

디자인 전공 스마트인재개발원 수료
강점인 디자인+디지털·AI 기술 접목
개발 과정 첫 단계 초기 모델링 담당
“정보 습득 장점...실무 경험 큰 도움”

AI 시대 발맞춰 ‘더 편리한 내일’ 설계합니다

하기 위해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7개월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김도원씨는 앞서 지역 소재 전기·전자분야 연구원에서 외향설계 등 디자인 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해왔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 홀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지 않고 미래 발전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유니컴퍼니로의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현재는 본래 주특기인 디자인과 개발원을 통해 배운 디지털·AI 기술을 접목해, 개발 과정의 첫 단계인 초기 모델링 등을 담당하는 프론트엔드(frontend)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다.

도원씨는 취업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세부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을 중요 요소로 꼽았다. 본인과 직장의 적합성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서의 미래 비전 등도 취업 과정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또 유니컴퍼니를 비롯한 각종 IT(정보통신)·AI·디지털 관련 분야 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김도원씨는 “IT 업계는 트렌드가 수시로 변하지만 타 업종보다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며 “컴퓨터와 몇가지 도구만 있으면 쉽게 작업 경험도 쌓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 취업 전에 실무 경험을 자주 쌓아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구임규씨는 유니컴퍼니에서 MES시스템(제조실행시스템)의 백엔드(backend)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선 과정에서 초기 디자인 등 하드웨어 부분이 완성됐다면, 마지막으로 데이터 송신 및 저장 체계를 구축·확인하는 업무다.

구씨는 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졸업 당시 IT업계 취업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에 막혀 오랫동안 서비스직에 종사했다. 구씨는 우연히 스마트인재개발원을 통해 디지털·AI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지

역 기업과의 채용 연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강을 신청했다고 한다. 구씨는 취업 과정에서 과거 C언어 기반의 IT기술이 현재는 파이썬 기반으로 바뀌면서 아예 새로운 지식을 공부해야해 어려움을 많았다고 말했다.

구씨는 개발원 수강 과정에서 맡았던 휴대폰 앱 ‘케이볼 오더’ 관련 마지막 프로젝트 발표에서 적극적인 태도와 혁신적인 의견 설명으로 유니컴퍼니 양승호 대표의 눈에 들어왔고 면접을 거쳐 성공적으로 입사할 수 있었다.

구씨는 “사실상 IT업계 비전공자에 가까운 상황에서 저와 비슷한 취업 고민을 하신 분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IR카메라 등 어려운 부분은 하드웨어의 부품별 명칭과 용도라도 미리 공부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별씨는 치기공학과 출신으로 IT기업을 꿈꾸며 개발원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하지만 7개월 간의 IT교육에서 적성과 맞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사무 행정 분야에 지원하게

됐다. 김별씨는 IT 개발자의 진로는 포기하게 됐지만, 교육 과정에서 IT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현재는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김별씨는 현재 취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보 탐색’을 꼽았다. 광주·전남 등 지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턴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일부 지역 소재 기업 및 경제 단체 또는 개발원 등에서 채용 연계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회들을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별씨는 “현재 청년 취업 문제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연계 채용 기회가 창출되는 추세”라며 “조금이라도 수월한 취업을 위해서는 막무가내식 취업 준비보다는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조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내 첫 카트리지 흡수법을 적용해 제작한 친환경 우산 빗물 제거 제품.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광주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유니컴퍼니 사무실에서 신입사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